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12월 교육 내용	04
❁ 12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12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12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12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12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5
어린이 QT God's Time	56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4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5
❁ 위드 포토	66
❁ 12월 추천도서	68
❁ 12월 위드스티커	69
❁ 12월 교육활동지	71



12월 교육내용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암송 구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첫째주♥

“주로 오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장 16절)
*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둘째주♥

“보고 들음을 넘어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5절)
* 예수님처럼 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요.

♥셋째주♥

“영광의 방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누가복음 2장 14절)
*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넷째주♥

“세관의 크리스마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변에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다섯째주♥

“질서있고 화평한 교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상)
*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와 화평의 선물을 주셨어요.

실천 내용

1.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2.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웃들을 섬겨요.

위드



12월 첫째주
2018년 12월 2일~8일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암송구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 성경 이야기 : 주로 오시다 ▷마태복음 16:13-18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지방에 갔나요? (13절)

②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나요? (16절)

★ 교육활동 - “베드로 손가락 인형 만들기”

준비물 : 색종이(소형), 필기도구

종이접기로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베드로 인형을 만들어보아요.

베드로 인형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을 함께 외쳐 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 암송구절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주로 오시다 ▷마태복음 16: 13-18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등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해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술렁거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입에서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런 인물들은 민족의 영웅과 같은 조상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제야 예수님은 만족하실 수 있으셨어요.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로 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로 해요.



Q 1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Pray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예레미야 1:11-1:19 “심판이 임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 보고 있다."
-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 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향:

향내를 풍기는 물건

숭배: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신앙함



with
관찰

1.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물음에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1절)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를 보고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흘러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14절)
② 북쪽 백성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한다. (15절)
③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다. (16절)
④ 너는 이제 가슴에 띠를 띠고 준비하야라. (17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것을 뜻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셔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예언들이 행해질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어서 예레미야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물이 끓는 가마솥을 보았는데, 이는 북쪽에서 내려온 강한 나라들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화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는 제가 될게요.
나의기도 : _____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2:1-8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3.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4.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5.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6.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수확 :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임, 또는 그 농작물

허물 :

잘못 저지른 실수

황량 :

황폐하고 거칠고 쓸쓸함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외쳐라고 하셨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2절)

“...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하였는지 ...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2.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에 대해 틀린 것은?

- ①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금은보화를 발견하였다. (5절)
- ② 너희의 조상이 나를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는다. (5절)
- ③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이시다. (6절)
- ④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계신지 묻지도 않는다. (6절)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랐어요. 이를 기뻐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주셨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을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 하지도 않았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할 그들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 하지 않았어요.

with
결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2:9-19 “중심을 지켜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 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12.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 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13.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14.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 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15. 원수들이 그를 잡아 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16.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17.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18. 그런데도 이제 네가 시홀 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앗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나?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샘:

물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곳,
또는 그물

멤피스:

애굽의 나일 강 서안에 있던
고대도시

다바네스:

애굽의 나일 강 삼각주 동편
언덕에 있는 도시



with
관찰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이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2.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었다. (11절)
 - ② 잡혀 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다. (14절)
 - ③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15절)
 - ④ 멤피스와 니느웨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16절)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이 새는 우상을 따랐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의해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셨어요.

with
결심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높아지더라도 전부 쓸모가 없어요. 이는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이 새는 우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심을 지키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2:20-37 “백성들이 행한 잘못”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네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만 나면 혈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 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타게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 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좇아다녀야 하겠습니다.'
-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 네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네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네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발정 : 성호르몬에 의하여 성적 충동이 일어남
- 수치** : 부끄러움
- 환난** : 근심과 재난

with
관찰

1.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23절)
- “... 네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와 같았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이방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녔다. (25절)
 - ②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27절)
 - ③ 돌을 보고 ‘나의 누이’라고 하였다. (27절)
 - ④ 백성들이 신을 스스로 만들어 섬겼다. (28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좋아하여 그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나무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어머니’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에게 ‘우리를 구하여주십시오’라고 말하였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을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잠을 자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주세요.
나의 기도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위드



12월 둘째주
2018년 12월 9일~15일



Memory Time



보고 들음을 넘어서

둘째주

-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 암송구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5
- ♥ 성경 이야기 : 보고 들음을 넘어서 ▷이사야 11:1-5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처럼 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여호와와 영은 어떤 영인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와 ○○의 영이요
○○과 ○○의 영이요 ○○과 여호와를 ○○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 2 예수님이 허리띠로 삼으신 것과 몸의 띠를 삼으신 것은 각각 무엇인가요? (5절)
“○○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 교육활동 -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것은?”

준비물 : 워드 활동지, 풀, 가위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공의와 성실의 띠를 함께 붙여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 암송구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5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처럼 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보고 들음을 넘어서 ▷이사야 11:1-5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알리신 내용이에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세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는 예고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심판과 판단에 대해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3절)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지요.(4절) 이러한 심판과 판단은 공의와 성실함을 지니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5절)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은 겉모습으로만 무엇을 판단하지 않기로 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심판을 기억하며, 매순간 의로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요.



Q 1 우리가 의롭고 정직해 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Pray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3:1-18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 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12.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13.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 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14.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15. 그 때에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16. 그 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 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노하다:

‘성내다’의 높임말

배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섬

양육:

아이를 보살피 자라게 함



with
관찰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2절)

“... 배신한 이스라엘아, !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너는 주 하나님을 배반한 너의 죄를 깨달아라. (13절)
- ②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14절)
- ③ 그 때에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세워주겠다. (15절)
- ④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16절)

with
생각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넓은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백성들이 돌아오면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고, 그들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항상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 살아 가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4:1-18 “백성들의 악함”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그 때에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11. 그 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12.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 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13.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14.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 버려라. 네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나?
15. "이미 단이 소리 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16.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에워싸고, 유다의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열풍 :
 열기를 품은 바람, 뜨거운 바람

키질 :
 키로 곡식 따위를 위아래로
 흔드는 일

병거 :
 전쟁에 쓰는 수레

군마 : 군사와 말

단 :
 잣·땃나무·푸성귀 따위의
 묶음

with
관찰

1.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고 말하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0절)

“...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이 에 닿았습니다.”

2. 그 때가 오면, 예루살렘은 어떤 말을 듣게 되나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 ① 소용돌이치는 북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11절)
- ② 훨씬 더 거센 바람이 주의 명을 따라 불어 닥친다. (12절)
- ③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온다. (13절)
- ④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14절)

with
생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악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알게 하려고 북쪽의 힘센 나라를 일으켜 유다의 온 땅과 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북쪽의 바벨론 군대는 마치 사자 굴에서 나온 사자처럼 달려들 것이고, 구름과 회오리바람처럼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잽싸게 날아와 죄로 물든 유다를 공격할 거예요.

with
결심

'큰 코 다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크게 봉변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북쪽 바벨론 군대에 의해 큰 코 다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르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4:19-31 “아이고, 배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 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 온다.
-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홀연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 가고 없다.
-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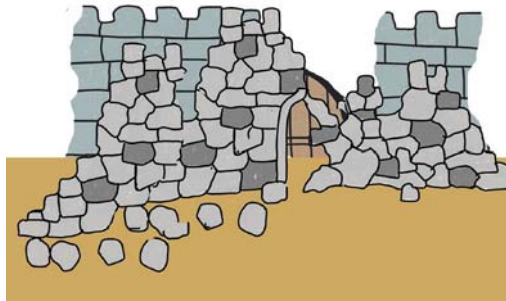
Q. 단어사전

황무지:

손을 대어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둔 거친 땅

옥토: 기름진 땅



with
관찰

1.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떤 괴로움에 빠졌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9절)

“아이고, 배야. 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2. 이스라엘은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나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23절)
- ②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언덕이 요동한다. (24절)
- ③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날아가고 없다. (25절)
- ④ 황무지마다 옥토가 되고, 모든 성읍이 새로 세워졌다. (26절)

with
생각

예레미야는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행한 나쁜 행동들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무너져서 빈 황무지가 되고, 그들이 집이 모두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거예요.

with
결심

친구나 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기도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5:1-19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8. 그들은 살지고 정욕이 왕성한 숫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9.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10.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 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11.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12.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3.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음행 :
 음란한 짓을 함, 또는 그런
 행실

전멸 :
 죄다 멸망함, 다 죽음, 모
 두 패함

부인 :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
 정하지 않음

전란 :
 전쟁으로 인한 난리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7절)
“...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을 하였다.”

2.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죄악 된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10절)
②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10절)
③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10절)
④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11절)

with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우상들, 소와 말의 형상들에 절하고 그것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북쪽의 힘센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위드



12월 셋째주
2018년 12월 16일~22일



Memory Time



영광의 방식

셋째주

-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 암송구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4
- ♥ 성경 이야기 영광의 방식 ▶누가복음 2:1-14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호적을 하기 위해 떠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어디에 뉘었나요? (2:7)



- ②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2:8)



★ 교육활동 - “말구유 만들기”

예수님께서서는 재산과 신분, 인종과 생김새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만나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구유를 만들어 보아요.



-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 암송구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4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영광의 방식 ▷누가복음 2:1-14

응애응애~ 호호 추운 겨울 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니!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반짝반짝 황금빛이 나는 궁궐일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말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은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 중 하나인 목자들이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 계셨던 곳은 빛나고 화려한 곳도, 돈과 명예가 가득한 높은 곳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낮은 곳이었어요. 재산과 신분, 인종과 생김새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마구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셨어요. 천사들은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Q 1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전하나요?

Pray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도와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5:20-31 “어리석은 백성”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0.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백성에게 들려주어라.
21.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22.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 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 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23.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곧아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 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24. 너희는 마음 속으리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25.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경계선: 경계(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가 되는 선
- 목이곧다: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아니하며 억지가 세다.



with
관찰

1. 본문에서, 백성을 표현한 말이 아닌 것은? (21절)
- ①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
 - ②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백성
 - ③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
 - ④ 매우 지혜로운 백성

2.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23절)

“그러나 너희는 아 이 세고

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with
생각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물며 모래와 바다 같은 자연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데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맺게 해주셨음에도 말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만이 남을 뿐이에요. 유다처럼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유다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고 다짐해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고, 기쁨으로 감사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6:1-15 “경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들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 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 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 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 갈 것이다.
-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잇속 :
이익이 되는 실속

with
관찰

1. 예루살렘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8절)

“...나의 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이 되게 하겠다.”

2. 주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아닌 것은? (13절)

- 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 채웠다.
- ②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 ③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백성을 속였다.
- ④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유다백성에게 경고하셨어요.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거두
듯 유다백성의 생명도 다 거두어 갈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고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비웃거나, 싫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겠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6:16-30 “옛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6.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 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 보고, 그 길로 가 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17.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 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18. "뭇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 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19.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20. "스바에서 들려 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 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21.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 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22.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걸림돌 :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절)

“...그들이 나의 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도 하였기 때문이다.”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0절)

<보기>
 “()에서 들여 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 오는 ()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도 싫고,
 온갖 ()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① 스바 ⇨ 향료 ⇨ 희생제물 ⇨ 번제물
- ② 스바 ⇨ 희생제물 ⇨ 향료 ⇨ 번제물
- ③ 스바 ⇨ 향료 ⇨ 번제물 ⇨ 희생제물
- ④ 번제물 ⇨ 희생제물 ⇨ 향료 ⇨ 스바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이 ‘옛길’로 가기 원했어요. ‘옛길’은 유다백성들의 조상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선한 길’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우리도 유다백성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따라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쉴 곳을 기대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가 되겠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7:1-15 “거짓된 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3.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 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4.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5.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6.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7.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 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 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행실 :
실지로 드러나는 행동

- **영원무궁** :
영원하여 끝이 없음



with
관찰

1.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절)

“...너희의 모든 과 을

. 그러면 내가 이 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2.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절, 6절)

- ① 이웃끼리 미워하며 살아요. (5절)
- ②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해요. (6절)
- ③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해요. (6절)
- ④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6절)

with
생각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했어요. 이를 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의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 당부하셨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예요.

with
결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들만이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또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위드



12월 넷째주
2018년 12월 23일~29일



Memory Time



세관의 크리스마스

넷째주

-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 암송구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13
- ♥ 성경이야기 세관의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9:9-13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변에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9:9)
- 2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9:13)

나는 ○○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교육활동 - “성탄트리 카드 만들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친구나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 성탄트리 카드를 만들어 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 암송구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13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변에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세관의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9:9-13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마을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직업으로, 마태 역시 마을 사람들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마태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모셔와 음식을 대접할 때에, 마태 외에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자리하는 것을 막거나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까?”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답하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던 참 뜻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귀천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Q 1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의미를 담아 우리 가정이 주변의 이웃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Pray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7:16-34 “순종”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1.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는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22.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23.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 뿐이지 않았더냐?
24.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25.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26.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제물 :

제사 지낼 때 바치는
물건이나 짐승 따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23절)

" 人 又 "

2.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것은? (24절, 26절)

- 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24절)
- ②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았다. (24절)
- ③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 (24절)
- ④ 이스라엘 조상들보다는 착했다. (26절)

with
생각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즉 예배를 드리면서 속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결심해요. 우리 모두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8:1-13 “돌아오기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5.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6.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 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7.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8.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9.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책: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나무람

그릇되다: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



with
관찰

1.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7절)

<보기>

학, 까마귀, 두루미, 독수리, 오리, 비둘기, 참새, 제비, 백조

“하늘을 나는 ()도 제 철을 알고,
()와 ()와 ()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2.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은 것은? (8절)

“...사실은 들의 된
 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with
생각

비록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며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게 여기기는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결국 유다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죄 많은 우리에게 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책만 하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로 해요. 이후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으며,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8:14-22 “내 마음도 상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8.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를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19.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 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20.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21.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 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술법:
 일을 교묘하게 잘 꾸미는
 생각이나 방법

가련하다:
 가없고 불쌍하다

with
관찰

1. <보기>에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 분류해보세요. (17절, 19절, 20절)

<보 기>

- A.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17절)
- B.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19절)
- C. 어찌자고 신상과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느냐? (19절)
- D.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말씀 ()

이스라엘의 말 ()

2.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21절)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를 입는구나.

과 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with
생각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또한 계속 죄를 짓는 유다 백성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슬퍼했어요. 유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함께 아프고 괴로움을 겪은 것이예요.

with
결심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 하는 사람들도 함께 슬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9:1-14 “혀”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 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것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 떼의 울음 소리도 들려 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단련 :
시련이나 체험, 실천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닦고 길러 군세게 함

탄식 :
한탄하여 한숨을 쉬

소굴 :
도적따위와같이해를끼치는 무리가활동의근거지로삼고 있는곳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백성을 무엇과 같이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하셨나요? (7절)

“ 7 人 ”

2. 본문에서, 백성의 혀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8절)

“ 8 이 人 ”

with
생각

유다 백성들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중 하나는 백성들이 거짓과 속이는 말을 즐겨했다는 것이었어요. 백성의 혀는 마치 독이 묻는 화살처럼 남을 해치기까지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하시며 슬퍼하셨어요.

with
결심

우리는 우리의 혀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사용하기로 해요. 또한 우리의 혀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도 실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과 속이는 말이 아닌 찬양과 사랑하는 말을 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위드

12월 다섯째주
2018년 12월 30일~2019년 1월 5일



Memory Time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

다섯째주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암송구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33 상

♥ 성경이야기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 ▷고린도전서 14:33상, 시편 85:10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와 화평의 선물을 주셨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고전 14:33상)
- ② 말씀을 보면, 무엇과 무엇이 같이 만나나요? (시편 18: 10)
- ③ 말씀을 보면, 무엇과 무엇이 서로 입을 맞추었나요? (시편 18:10)
- ④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주신 선물(성격, 재능)을 나누어 보아요.
- ⑤ 올 한 해 동안 친구와 생각이 달라서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누어 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다섯째주

- ♥ 주제 :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 ♥ 암송구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33 상
-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와 화평의 선물을 주셨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 ▷고린도전서 14:33 상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도 많이 주셨는데, 이러한 선물은 서로 돕고 섬기라고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이 나뉘어 있었어요. 지역에 따라, 출신에 따라 몰려다녔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선물도 자기를 뽐내는데 사용했어요. 또한 예배 시간도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웠어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격려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며 질서를 따를 때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며 서로를 인정하고 질서를 따랐나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였나요? 올 한해를 돌아보며 언제나 질서 있고 화목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 1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생각하며, 2019년에는 어떻게 더욱 질서 있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요.

Pray 하나님, 서로 생각이 달라도 질서 있고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9:15-26 “죽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18.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 나오. 우리의 눈에서"
19. "눈물이 흘러 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나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온다. '어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20.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21.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 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 간다."
22.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 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가 널려 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 장송곡 : 장례 때 연주하는 곡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조가 :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 수치 : 창피하고 부끄러움
- 애도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

with
관찰

1.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오라’ 하셨나요? (1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2. 본문말씀 중, 거리와 장터에서 죽어가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21절)

“...거리에서는 어린 이 사정없이 죽어 가고,
장터에서는 들이 죽어 간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 재앙
으로 인해 유다에 여인의 곡소리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이었어요.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줄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with
결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벌하려고 준비된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여 알려주신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지키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다섯째주 TIME 2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10:1-16 “하나님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6.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7.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8.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9. 그 우상에게 얇게 퍼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숨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0.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지요, 주님만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공예품 :

실용적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게 만든 물품

with
관찰

1.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6절, 7절)

- ① 위대하지 않으십니다. (6절)
- ②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6절)
- ③ 세계 만민의 임금님입니다. (7절)
- ④ 공경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7절)

2. 주님은 우상과 달리 어떤 분이신가요? (10절)

“오직 주님만이 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계시는 하나님이며, 임금이십니다...”

with
생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고, 섬겨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들어 진 신이 아니라,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셨던 신이니까요.

with
결심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기억해요. 또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해요. 우리 모두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_____

GOD'S 다섯째주 TIME 3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10:17-25 “목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0.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21.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22. "들려 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 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23.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24.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25.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 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진군 :

적을 치러 군대가 나아가감.
또는 군대를 나아가게 함



with
관찰

1.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21절)

“백성의 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2.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23절)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with
생각

미련한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지 못하고 흩어버리고 말아요. 반면, 지혜로운 목자는 양떼를 좋은 풀밭으로 데려다 주지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미련한 목자였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목자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구해야 해요.

with
결심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이되기를 기도해요.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대해요. 우리 모두 나의 길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도록 지혜를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11:1-8 “언약”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3.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4. 이 언약은, 죄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5.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용광로 :

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여서 쇠붙이를 뽑아
내는 가마

맹세 :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
함

with
관찰

1.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것은 무엇일까요? (2절)

“ ○ ○ ”

2. 해당 문장에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4,5절)

<보 기>

- A.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5절)
- B.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4절)
- C.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4절)
- D.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5절)

“...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 → →)
 오늘에 이르렀다.”

with
생각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지요.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돌보시는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기도 :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아래의 시를 읽어주세요.
3.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말_이필수

말에서 창조가 나온다
 말에서 믿음이 나온다
 말에서 복이 나온다
 말에서 능력이 나온다
 말에서 치유가 나온다
 말에서 화평이 나온다
 말에서 연합이 나온다
 말에서 인격이 나온다

말이 심판이다
 말 공력에 따라 심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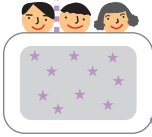
나의 말은

○○(아)야. 잘 잤니? 오늘은 너에게 ‘말’에 대해 이야기해주려고 해.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이야.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을 키워나가지. 그 뿐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병든 자는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는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진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있을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게 돼! ○○(아)야, 우리는 ○○(이)가 이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해. 또한 어느새 ○○(이)가 하는 말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를 기대해.

가족과 함께하는

bed
time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와 함께 아래의 노래를 듣거나,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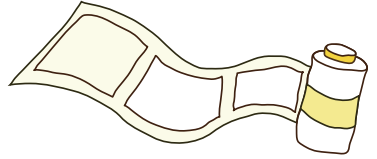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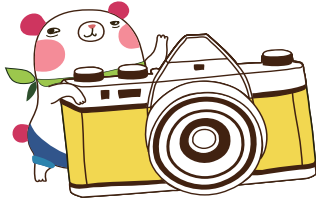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_강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야. 어느새 일 년이 훌쩍 가버렸구나. 하나님께서 2018년 동안 ○○(이)를 통해서 많은 행복을 느끼셨을 거라 확신해. 우리도 하나님께 올 해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해보자. 또 지금까지 지내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임을 찬양하자. 떠올려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가족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더불어 우리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가족이 되자. 사랑한다, ○○(아)야. 올 해 정말 수고했어!

유년부 PHOTO



유년2부



1-3 이한휘

유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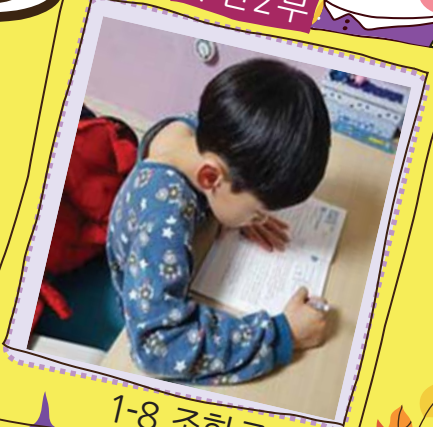
1-4 정재아

유년2부



1-8 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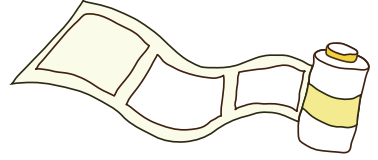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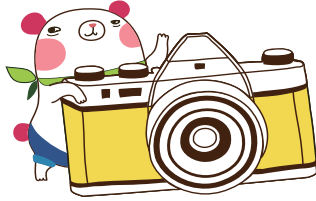
유년2부



1-8 조한준



유년부 PHOTO



유년2부



1-12 김예겸

유년2부



1-14 임채은

유년2부



2-10 민주아

유년2부



1-4 최민하



12월

제목: 성탄절 이야기

글: 안젤름 그윈 / 그림: 줄리아노 페리

출판사: 예키즈



하나님이 보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독일의 영성신학자 안젤름 그윈의 글과 따듯하고 서정적인 줄리아노 페리의 그림이 2천 년 전 갈릴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그림책은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와 함께 했던 요셉과 엘리사벳도 만날 수 있지요.

인구조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인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곳은 허름하고 냄새 나는 마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까만 하늘에 큰 별이 빛나던 그 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파스텔톤 그림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해 성탄절이면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트리와 반짝이는 불빛으로 덮인 세상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엔 두 손에 선물상자를 받고 기뻐하는 어린이들이 있지요.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이들도 알고 있을까요? 이 그림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만물의 왕인 예수님이 그토록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생각해 보며 기쁜 날, 성탄절의 의미를 아이들이 되짚어 보게 할 것입니다.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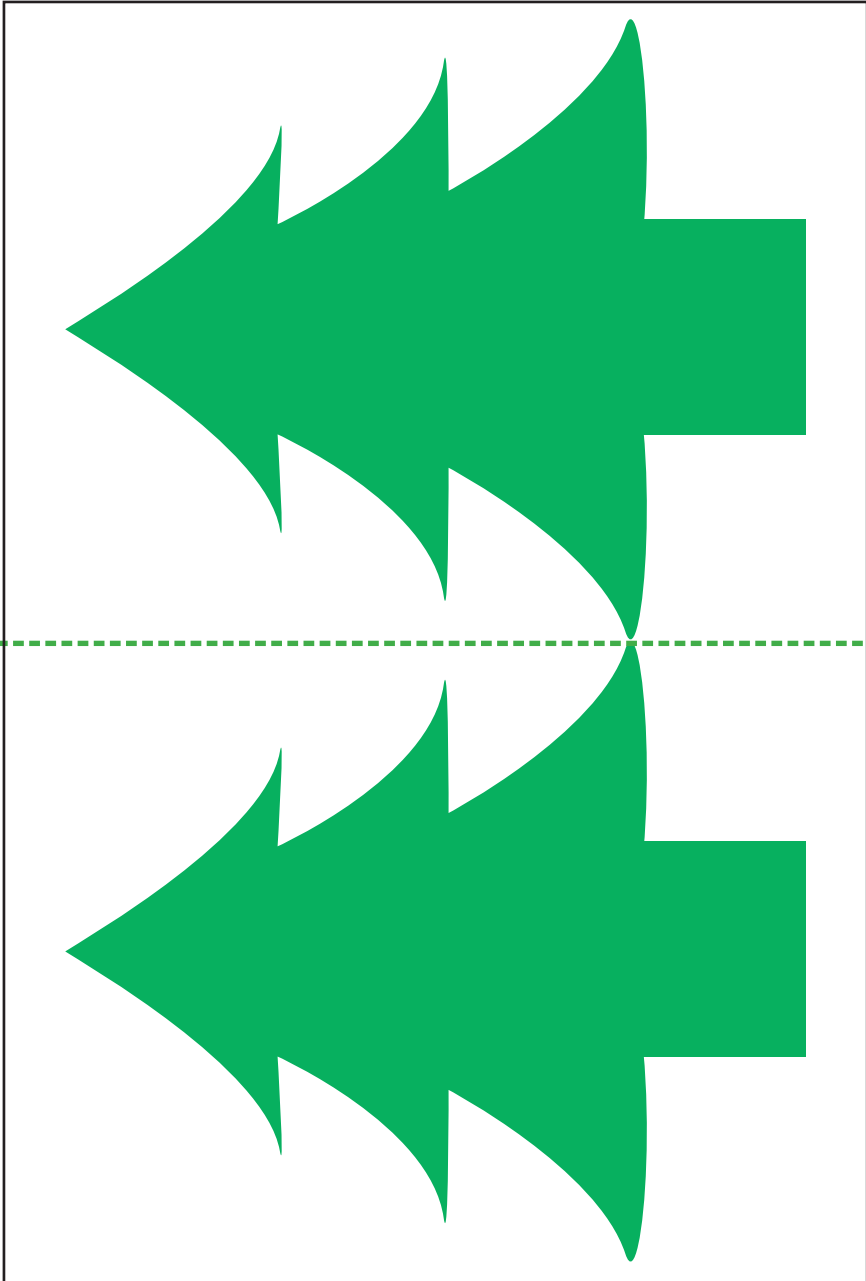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공의와 성실

↑ 벨트를 오려서
예수님의 허리에
붙여주세요~



MERRY CHRISTMAS

.....

.....

.....

.....

.....

.....

.....



